

말레이시아 반도(半島) 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일반적 형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y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Malay Peninsular

권 태 호* 박 순 관**
Kweon, Taeho Park, Soonk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traditional housing-culture in South East Asia, focused on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The research objectives are : 1) to obtain informations related to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in West Malaysia. 2) to survey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in the selected area. 3)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were a major focal point of traditional Malay village society. The Malay houses provided the basic needs of shelter to the villagers. They were designed and built by villagers themselves, thus, manifestation of the creative and aesthetic skills of the community. Further, these houses reflect those factors including climate, geographical features, history of the region.

키워드 :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고상식(高床式) 주택, 캄퐁, 전통주거양식, 지역적 특성, 지붕양식.

Keywords : Southeast Asia, Malay Peninsular, Raised Floor House, Kampong, Traditional House Types, Regional Feature, Roof Styl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지금까지 한국건축계에서 이루어져 온 건축 문화연구는, 지역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상당히 편협된 결과를 보여 주었고 지금도 그 같은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건축역사와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연구대상을 지역적으로 '서양(유럽) 아니면 한국'에 국한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진 동양건축연구

또한 중국, 일본, 한국에 국한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건축가들 역시 서양의 건축경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한국적인 역사적 가치구현에만 매달려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축역사연구의 지역적 다양성을 제한하고, 건축가의 상상력을 지리적·관념적으로 한정된 범위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현상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서양중심화와 주체적 역사인식의 결여 그리고 서양건축의 주변성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지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또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키우고 그것을 더 넓은 의미에서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다듬어

* 정회원, 세명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공학박사

가는 일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가 무시해 왔던 지역(비서구 사회 혹은 제3세계)의 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재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축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활동과 건축시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양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지녔으며, 독립 이후의 양상과 현실 또한 그렇다. 비록 동남아시아가 역사적으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거쳤고 또 현실적으로 같은 차원의 건축문화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현실과 역사를 재론하는 데 필요한 제3의 기준과 가치를 제공한다¹⁾.

1.2 연구의 범위와 의의

한 지역의 건축물은 그 지역과 연관된 실질적인 조건(기후, 환경, 지리, 재료 등)과 인문적인 상황(민족적 관습, 기질, 종교, 우주관 또는 세계관 등)의 종합적 결과로 남게 되며,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화(價値化) 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민족(종족) 구성과 다층적인 종교적 양상에서 비롯된 복잡한 인문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이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지역적 특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합일된 건축원리나 논리를 인문적 측면에서 찾아내려는 시도보다

는, 기후나 재료 등과 같은 실질적 조건들에서 기인된 일반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핀 후 각 지역의 인문적 상황을 보완적으로 서술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중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지역의 전통 주거건축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성을 고찰했는 바, 이 지역의 주거건축에 영향을 미친 실질적인 조건들과 그것의 건축화에 초점을 두면서 인문적인 개념과 관련된 특성을 보완적으로 설명했다.

전술했듯이, 지금까지 우리 건축학계에서는 근대화과정에서 드러낸 지나친 서구중심주의 탓으로, 이 지역을 비롯해 소위 비서구 지역(혹은 제3세계 지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성과는 풍성하지 못했다. 연구사가 극히 빈약한 우리 현실에서,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문화적 자료와 정보를 개괄적으로나마 차분하게 소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작업일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갖는다.

2. 동남아시아 전통주거건축의 기원과 일반성

아시아 지역에서 주택의 역사적 유형과 특성은 각 지역의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자연적 상황에 따라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서도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에서 기인된 다양한 타입의 주택양식이 전개되었는 바, 역사적으로 또 지역별로 대략 86개에 달하는 주거건축양식이 펼쳐져 있었다.²⁾

각 양식들은 민족 고유의 문화적 개별성과 특수성을 비롯해 각 지역의 실질적 조건과 연관된 건축적 특징과 의미를 드러낸다. 이들 양식들은 확실히 크고 작은 차이를 갖지만, 한편으

1) 박순관, 탈(脫) 세계건축 속의 언더그라운드 건축-동남아 건축 담론, 건축인(poar)誌 2000년 10월 기획특집호, pp208-212 참고. / 이 글에서 비서구 혹은 제3세계 지역에 대한 건축문화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일차적 대상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갖는 의의를 언급했다.

2) Lim Chong Keat, Habitat in Southeast Asia-A Pictorial Survey of Folk Architecture, National Art Gallery KL, 1987. p.7

로는 그것의 역사적 기원과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 일반적 유사성도 지닌다. 이 지역의 건축적 기원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과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아직까지도 모호하다. 그 이유는 목조건축물은 그 수명이 최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학적·언어학적 유추를 종합해 보면, 대략 5,000~6,000년 전 경으로 추정될 수 있다³⁾. 문헌에 따르면, 인도차이나 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 걸쳐 오스트랄리아인(Australoid)을 비롯하여 니그로인(Negroid)과 멜라네시아인(Melanesoid) 등이 차례로 이 지역에서 살았고, 오늘날 말레이시아 반도에 남아 있는 소수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Orang Asli)’⁴⁾는 그 후손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이들은 장대기둥 위에 대나무나 등나무로 기본 구조틀을 짜고 야자수 잎으로 덮은 오두막 형식의 원시적인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동남아시아 주거양식의 원초적 형태로 간주된다. 오랑 아슬리 주거는 지역(해안가, 낮은 지대, 높은 지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지반에 약 40cm(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정도 깊이로 기둥(말뚝)을 박고 그 위에 바닥보를 걸친 후 바닥널과 대나무 판자를 설치했

으며, 기둥 위에 들보와 도리 및 서까래를 얹히고 그 위에 야자수잎을 입혔는데, 지붕각도는 평균 45도 이상이었다. 또한 바닥보는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약 1~4m 높이에 단단한 나무못으로 고정되었다.

마룻바닥을 높일 경우는 밑 공간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여 대개 마룻바닥을 낮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바닥 마룻널은 보와 직각으로 연결되었고, 그 위에는 탄성이 높고 윤기가 있는 편편한 대나무를 깔았다. 이와 같은 바닥구조는 환기와 통풍에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평균 5년에 한 번 교체)가 용이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대나무는 벽재료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창문은 집이 높을 경우에는 크게 뚫어 망루처럼 보이게 했고, 낮을 경우에는 병커 모양같이 가늘게 설치했다. 출입문은 처음에는 나무껍질을 이용해 하나만 설치했지만, 문명화되면서 종교적 영향으로 남녀의 위계가 생김에 따라 후에 두 개로 늘었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 출입을 위한 계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지붕 아래 설치하여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有史) 이전 시기에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었던 이러한 기본적인 축조방식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했다. 이들 양식들은 크게 지붕형태와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구성의 차이에 의해 여러 종류로 유형화된다. 특히 지붕의 형태와 장식적 구성은, 동아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전통주택에서 가장 큰 미적 효과를 드러내는 건축요소로서, 공간구성의 변화 및 자연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형화 작업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3. 말레이시아 반도지역 전통주거건축의 기본 개념과 특성

3.1 반도 지역의 원시주거와 전통주거

3) Roxana Waterson, *The Living House-An Anthropology of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Thames & Hudson, 1997. pp.11~15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Archipelago Press(Singapore), 1999. pp.8~9
4) 말레이시아 반도의 첫 번째 원주민 집단으로, 약 2만 5천 년 전에 이동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반도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약 10만 명 정도로, 크게 세 종족-반도 북부의 네그리토(Negrito)족, 반도 중앙부의 세노이(Senoi)족, 반도 남부의 원말레이(Proto-Malay)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원말레이족은 다른 종족과는 달리 기원 전 2,500-1,500년 경 중국 남부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 Chen Voon Fee, 앞책 p.11
5) 이주현,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현대사회, 동남아연구 제5권(1996.2), pp.50~51

말레이 반도 지역에 살았던 오랑 아슬리족의 주거는 유목생활에 편리한, 단순하고 급조(急造)가 가능한 것으로 3개의 기둥을 땅에 박고 그 위에 가는 기둥이나 대나무를 얹힌 후 나뭇잎을 포개서 경사를 준 것이었다. 집의 크기는 1.5~2m를 넘지 않는 단일공간이었으며, 바닥은 지면에서 15~20cm 정도를 올렸다.(사진 1) 이것은 말레이 반도의 기후와 연관된 열대성 특징을 지닌 토착주거로 정착되면서 ‘캄퐁(Kampong)’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발전했다⁶⁾.



사진 1. 원시 주거형식의 한 예

일반적으로 캄퐁은 마을 단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여러 채의 말레이 주택들과 모스크 및 여러 마을 편의시설(학교, 놀이터, 상점 등) 등으로 구성되며, 마을 내의 각 영역은 물리적인 경계 없이 비정형적이고 개방적인 배치를 취한다. 이는 각 단위주택을 엮갈려 배치함으로써 마을 내 각 단위주택 내부의 환기와 통풍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그림 1)

또한 주택의 향은 일반적으로 동서축을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집이 신성한 메카를 향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일사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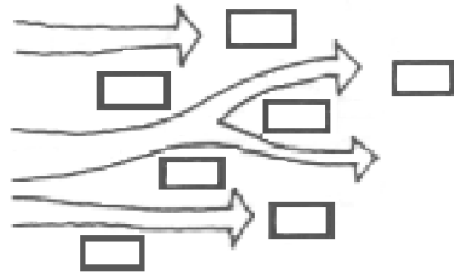


그림 1. 마을 배치 개념도

3.2 전통주거건축의 개념과 기본 구조

말레이 전통주택 역시 크게 세 부분-기둥, 벽, 지붕-으로 구성된다. 말레이의 주거문화에서 볼 때, 이러한 기본 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하나는 피난처로서의 욕구와 주택의 구조적 강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의 채택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연관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말레이인들이 믿고 있는 토착신앙 측면에서 인간 삶의 중요한 단계-탄생, 생활, 죽음-를 의미하거나 인간의 신체-다리, 몸, 머리-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⁷⁾

덧붙여,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세계의 질서 혹은 자연관과 연관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크고 단단한 나무는 자연적 힘과 생명력이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 전에 의식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 집도 영혼을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요 기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나무의 위·아래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집을 인간의 형상과 생활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으며, 때로는 인간 신체에 따른 비례원리로 치환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간 신체를 기준으로 부재의 크기를 정하는 것, 자연환기를 집

6) Ken Yeang, The Architecture of Malaysia, The Pepin Press(KL), 1992. p.104

7)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루 지역의 부기스 종족 후손의 말레이인들 경우는 주택을 인간에 비유하여 설명했으며, 구성 또한 인간신체를 은유화했다.

이 숨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집의 안팎에는 항상 어떤 우주세계와 연관된 힘(기운)이 감돌고 있어서 개구부가 많으면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개구부 윗 부분이나 부재 틈새에 이슬람 부적을 설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⁸⁾.

또한 말레이인들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른 관습과 예법을 신봉하는데, 남녀의 구분에 의한 공간사용의 구분이 대표적이다⁹⁾. 오늘날의 말레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슬람문화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여러 외래문화¹⁰⁾와 자체적인 토착문화 등이 상관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베란다와 현관 및 계단 등으로 구성되는 집의 전면부는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며, 통로와 부엌 등이 있는 후면부는 여성이 전용하는 공간들이다.

전통 말레이 주택은 자연환경, 거주민의 생활 방식, 경제적 상황, 지형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항상 마을 사회를 이루는 한 단위로서 고려되었다. 특히, 습한 열대 기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는데, 고상식 구조는 덥고 습한 열대기후 지역에서 지반의 습기와 홍수 및 밀림지대의 위협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식이었다.

목구조를 전통으로 하는 말레이 주택은 대부분 그 지역의 목수에 의해 지어졌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나무로 기둥과 보를 엮고, 가는 나무와 대나무로 바닥과 벽을 세우고, 아탑(atap)¹¹⁾

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니파, 롬비아, 베트람 등)의 각널과 판재로 지붕을 덮는 형식이다.(사진 2)



사진 2. 전통 말레이 주택의 한 예

기둥과 지붕마룻대 같은 주요 구조재는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단단한 나무(cengal, belian, merbau, resak 등)로 만들고, 바닥과 벽의 연결재나 서까래 및 개구부(창과 문 등)의 프레임은 적당한 강도의 목재로 만들어진다. 티양(tiang)이라고 불리는 기둥은 지붕하중을 지반으로 직접 전달하는 부재로, 최소한 12cm 이상 크기의 목재를 사용했다¹²⁾.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5도 정도의 급한 경사를 지닌 박공식 지붕은 집의 형태성을 지배하는 요소로 대개 두 단으로 단층을 두어 틈을 두었고, 박공 부분은 개폐가 가능한 판널로 맞추어져 있다. 이는 빗물의 유입방지와 환기 및 통풍을 위함인데, 경우에 따라 박공 끝부분을 곡선으로 치켜 올려 내부공기의 원활한 배출과 함께 지붕의 형태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림 2, 사진 3) 말레이 전통주거건축에서 지붕 형식은 주거양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바닥과 벽은 대나무나 얇은 판재를 사용해 수평·수직·대각선으로 엮었고, 외벽에

8) Chen Voon Fee, 앞 책, pp.16~17
9) Abdul Halim Nasir & Wan Hashim Wan Teh, The Traditional Malay House, Penerbit Fajar Bakti Sdn. Bhd.(KL), 1997. p.15
10) 넓게는 역사적으로 인도와 중국, 좁게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말라카 정복 이후 시작된 서구의 영향 또한 말레이시아 건축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1) 가볍고 뛰어난 열절연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낮에는 열을 방출하고 밤에는 추위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각 단편은 2×0.5m 정도이며, 수평으로 겹쳐지도록 묶는다.

12) Chen Voon Fee, 앞 책, p.22

덧문이 달린 창을 여러 개 두어 빛의 유입과 환기 및 조망을 좋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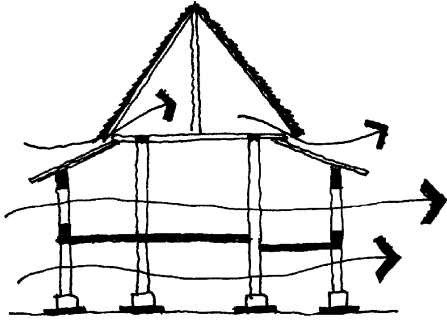


그림 2. 말레이 주택의 환기 개념도

(rumah ibu, 본체공간), 루마 다푸르(rumah dapur, 부엌), 세람비(serambi, 베란다)-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복도와 현관이 추가된다. 각 공간들의 구분은 최소한의 칸막이와 약간의 단차(段差)로 이루어진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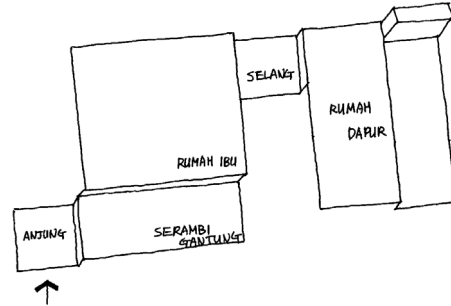


그림 3. 전통주택의 내부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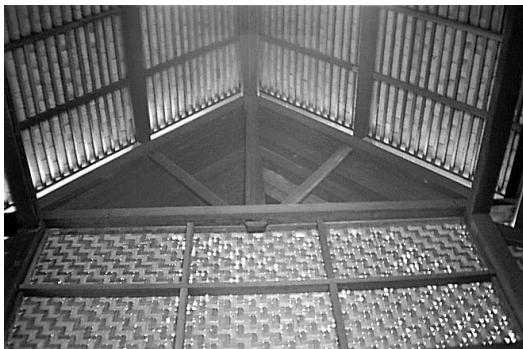


사진 3. 박공 부분의 내부 모습

루마 이부라고 불리는 집의 중심(본체)공간은 침실, 거실, 기도실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가지며, 가장 사적(私的)이고 종교적인 공간성격을 나타내는 동시에 대부분의 집안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공적인 성격도 지닌다. 가족간의 사적인 공간구분은 천 등과 같은 간단한 재료로 칸막이된다.

3.3 전통주거건축의 공간구성

말레이 전통주택의 공간적 특징의 하나로 개방성과 공간변화의 가변성을 들 수 있다. 내부 공간은 여러 기능으로 나누는 벽이 없이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루마 당가우(rumah dangau 혹은 teratak)로 알려진 이 같은 단일공간 형식은 이 지역의 원초적인 버네쿨라적 형식인데,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지방주택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런 형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레이 반도 전체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주택형식은 크게 세 개의 주요 공간-루마 이부



사진 4. 루마 이부(중심공간)의 예 1

루마 이부에 현관(anjung)과 출입계단 그리고 좁다란 베란다(serambi) 공간 등이 연결된다. 안중(anjung)이라 불리는 현관부는 손님을 맞이

하는 곳이거나 가족구성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현관부와 직결된 길고 좁다란 베란다 공간은 주로 어린이의 잠자리나 외부손님을 위한 사랑방 기능을 갖는데, 경우에 따라 물건을 파는 행상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진 5. 루마 이부(중심공간)의 예 2

루마 다푸르라고 불리는 부엌은 항상 건물의 후면에 배치된다. 여기에 페란탈(pelantar)이라고 불리는 옥외 데크가 붙어 다용도 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 세랑(selang)이라고 불리는 복도는 본체공간과 부엌을 연결하면서 주로 여성들의 사적공간으로 이용되며, 주택의 전면과 후면 사이에서 방화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집 아래 공간은 다목적 공간으로서 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되며,(사진 6 참고) 이외에도 로텡(loteng)이라 불리는 다락공간이 지붕공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6. 바닥 밑공간의 한 예

일반적으로 주택의 전면에는 단위주택의 경계로서 나무나 식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당 공간이 있고, 뒷 편에는 우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집 주변의 나무나 식물은 단순한 조경요소가 아니라 집에 그늘을 제공하고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여 내부공간의 환기와 통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전통 말레이 주택에는 계단식으로 처리된 전면의 주출입구(사진 7 참고)와 뒷편의 부출입구가 있다. 전면 입구는 주로 방문객과 남성이 이용하며, 계단 지면에는 석판이나 목판을 설치하여 신발을 놓고 발을 씻는 용도로 이용된다. 후면 입구는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것이다.



사진 7. 현관 계단부의 한 예

4.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주요 유형과 특성

4.1 반도 서부지역의 전통주거건축

말레이 반도에 퍼져 있는 전통주택형식은 지역위치에 따라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설명되며, 각 지역은 건물의 지붕형식과 공간구성 그리고 기둥의 수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다시 세분된다.

반도 서부 해안의 전통 말레이 주택은 지붕

표 1. 말레이시아 전통주거건축 양식

구분	양식	주분포지역	종족	특성	비고
반도 서부 지역	븨븨 판장 양식	서부 해안 북부지역	말레이 토착원주민	*박공지붕 *급한 지붕물매 *無장식의 단순한 지붕구조 *직사각형 평면	*토착형식 *반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
	븨븨 리마 양식	페낭, 세랑거, 조호루		*모임지붕 *긴 처마공간 *직사각형 평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영향 *동남아 방갈로 양식의 전형으로 발전
	븨븨 페락 양식	서부 해안 북부지역		*합각지붕 *단일한 지붕물매 *높은 지반층	*네덜란드의 영향
	말라카 양식	말라카	부기스	*븨븨 판장 양식의 복합적 구성 *옥외 마당공간 *중국식 채색벽돌과 타일 장식	*중국의 영향
	미낭가바우 양식	네그리 셈비란, 말라카	미낭가바우	*이중 지붕 구성 *곡선지붕 *긴 베란다 *높고 넓은 지붕공간	*힌두, 유럽, 토착문화의 복합적 구성
반도 동부 지역		게란탄, 테렝가누, 파항	참(Cham)	*태국식 지붕구성 *테라코타 지붕타일 장식 *큰 기둥, 높은 천정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향 *기둥의 수에 따른 양식구분

의 형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 - 1)븨븨 판장(Bumbung Panjang) 양식, 2)븨븨 리마(Bumbung Lima) 양식, 3)븨븨 페락(Bumbung Perak) 양식, 4)말라카(Melakan) 양식-으로 나뉜다. 이들 명칭은 지역과 지붕모양에서 함께 유추된 것으로 보이는데, 븨븨 판장 양식 이외의 나머지 세 양식은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이다.¹³⁾ 이들 세 양식은 토착형식인 븨븨 판장 양식에 비해 천장고가 높는데, 그 이유는 외국문물의 영향에 따른 실내가구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1) 븨븨 판장 양식은 토착적인 형식이 발전한 것으로 반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는 양식이며, 형태 또한 여러 양식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그림 3 참고) 길다란 박공지붕이 특징인 이 양식은 경사가 급하며, 단순한 지붕구조로 인해 신축과 증·개축이 용이한데, 이런 이유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다¹⁴⁾. 주로 서부 해안의 북부지역(Perlis, Kedah, Penang, Perak 등)을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된 이 양식은 다른 양식들에 비해 장식이 적고 기능적인 특성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전면에 베란다가 지닌 직사각형 공간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복도에 의해 분리된 두 구조물로 구성된다. 중심공간에 비해 좁 낮게 계획된 복도공간은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사적인 공간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기능이 특히 강조된 주택양식을 별도로 루마 세랑(rumah

13) Lim Jee Yuan, The Malay House-Re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Institut Masyarakat(Malaysia), 1987. p.22

14) Lim Jee Yuan, 앞 책, p.24

selang)이라고 부른다.¹⁵⁾ 또한 부엌은 대부분의 내부공간이 같은 높이에 계획되는 것과는 달리 바닥과 지붕을 낮게 함으로써 다른 공간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붐봉 리마 양식은 명칭 속에 ‘다섯 개의 마루를 지녔다는 의미가 내포된 직사각형 평면의 모임지붕 양식이다.(그림 4 참고) 주로 페낭(Penang), 세랑거(Selangor), 조호르(Johor)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처마길이가 베란다 공간 끝까지 덮을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양식은 식민 시기에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던 영국건축가들이 이 양식을 응용하여 ‘방갈로(bungalow)’¹⁶⁾라는 독특한 건물로 변환시켰고, 이것이 후에 동남아시아 방갈로 양식의 전형이 되었다¹⁷⁾. 이런 영향 때문에 말레이 고유의 전통적인 특성보다는 도시적인 특성이 더 강하게 가미되었다.

3) 붐봉 페락 양식은 다른 양식들과는 달리 합각지단일한 지붕물매를 지닌다.(그림의 립 5 참고) 지반에서 높이 올려 지은 것 또한 다른 양식들과 다른 점인데, 이는 전쟁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¹⁸⁾. 이 양식 역시 식민 시기 동안에 네덜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붐봉 판장 양식과 함께 주로 서부 해안의 북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외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양식들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양식에 속한다.

4) 말라카 양식은 독특하게 두 건물-루마 이부(본체), 루마 다푸르(부엌)-사이에 마당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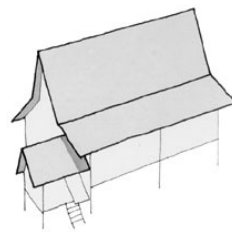


그림 4. 붐봉 판장 양식



그림 5. 붐봉 리마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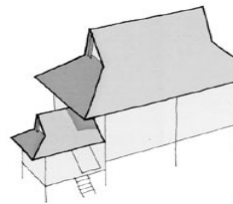


그림 6. 붐봉 페락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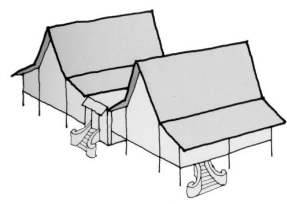


그림 7. 말라카 양식

는 것으로 주출입은 마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15세기 경 말라카 지역으로 이주해온 부기스(Bugis) 종족이 발전시킨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그림 6 참고)

지붕양식은 전술한 붐봉 판장 형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본체 건물의 지붕은 60도 정도의 가파른 경사물매를 갖고 있으며, 베란다 부분의 지붕 물매는 30도 정도이다. 이 양식에는 특히 중국전통주택에서 차용된 장식요소들이 강하게 보이는데, 중국식 채색벽돌의 사용과 타일 장식이 대표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양식 이외에 덧붙여, 네그리 쎬비란(Negri Sembilan)과 말라카 지역에서 함께 찾아 볼 수 있는 주거양식으로 미낭가바우(Minangkabau) 양식을 들 수 있는데, 17세기 경 네덜란드가 말라카 지역을 통치했던 시기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미낭가바우 종족이 발전시킨 양식으로 베란다가 길게 확장하면서 지붕의 곡선미를 강조했다.(그림 7. 참고) 전체적으로 내부 본체공간을 덮고 있는 윗지붕과 전면의 길다란 베란다 부분을 덮고 있는 아랫지붕이 중

15) Chen Voon Fee, 앞 책, p.24

16) 베란다가 붙은 단순한 형식의 목조단층 주택으로, 인도 벵갈 지방에서 유행했던 건축양식을 영국건축가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개했다.

17) Thew Kim Lean, Malay Influences in Architecture Focus on West Malaysia & Singapore, B. Arch. Thesi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79. p.42

18) P. G. Morley, The Malay Houses-An Article in PETA Journal, Nov, 1955 issue / Thew Kim Lean, 앞 책, p.38에서 재인용.

양부에서 서로 겹쳐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아랫지붕의 양 끝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어 다른 양식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아랫지붕의 곡선은 내부공간의 환기와 통풍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¹⁹⁾, 아랫지붕에 형태적 상승감을 주면서 윗지붕과의 대비를 의도한 미학적 시도로 이해된다. 이 곡선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힌두문화와 유렵문화 및 미랑가바우 토착문화가 혼합된 장식이 강하게 배어 있다²⁰⁾. 또한 지붕공간에 규모가 큰 다락공간(창고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 본체공간을 높여 지었기 때문에 2층 규모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양식은 말레이의 여러 지붕양식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곡선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건축적 전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양식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 전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롱하우스(Long Roofed House)를 들 수 있다. 하나의 길다란 지붕마루와 기둥으로 구성되며, 지붕의 양 측면은 V 혹은 A자와 같은 삼각형 모양이다. 전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종족과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타입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네게리 쉴비란 지방에 있는 롱하우스의 경우는 미낭가바우에 있는 건물과 연관된 건축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또 테렝가누와 게란탄 지방의 롱하우스는 태국 남부에 있는 전통주택양식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는 비슷하다.

4.2 반도 동부지역의 전통주거건축

게란탄(Kelantan), 테렝가누(Terengganu), 파

항(Pahang) 등 세 지역으로 구성된 말레이 반도 동부해안은 서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태국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문화적 색채가 서부지역에 비해 짙다. 말레이인의 초기 조상들 중 일부 그룹은 캄보디아와 오늘날 인도차이나 연안을 따라 해상활동을 전개했던 참(Cham)족으로부터 왔으며,²¹⁾ 이들은 반도의 동부해안을 따라 정착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지역에서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나중 시기에 이들 나라로부터 미처 온 문화적 영향은 더 강해졌다. 이런 이유로, 게란탄과 테렝가누에 있는 전통주택은 지붕의 형식²²⁾과 벽면 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태국식(사진 8 참고)과 캄보디아식 주택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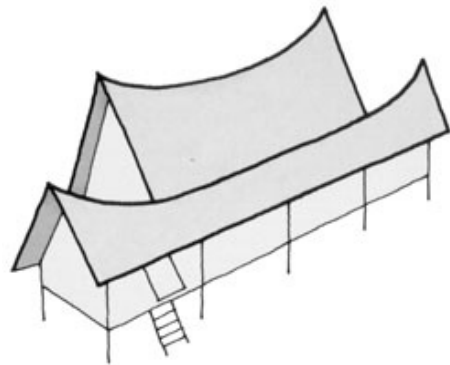


그림 8. 미낭가바우 양식

- 21) 조홍국,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18주년 기념 학술지, 1996. pp.11~12
- 22) 게란탄과 테렝가누 지역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싱호라(singhorra, 태국 남부의 송클라 지방, 타일의 기원이 되는 곳)라고 불리는 타일로 덮여져 있다. 또 페레스(peles)라고 불리는 완만한 곡선의 박공마루는 페라후(perahu)로 알려진 그 지역 어선의 돛대장식과 유사한 모양을 갖는데, 해오라기의 깃털장식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다의 여부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호자로서 지붕형태구성에 도입되었으며, 지붕에 유려한 형태감을 부여해 준다.

19) Dean Sherwin, Malay Roof Forms and Ventilation, MA(Majallah Akitek) Vol 1:77, 1977. p.52
 20) Thew Kim Lean, 앞 책, p.33

박공 부분의 지붕선은 태국식의 지붕 곡선으로 처리되었고, 박공마루의 두께도 다른 지역의 것에 비해 두꺼울 뿐만 아니라 기둥의 크기와 천장고도 서부 지역의 주거양식에 비해 크고 높다.(그림 8 참고) 특히, 태국에서 전래된 장사방형(長斜方形) 형태의 테라코타 지붕타일은 서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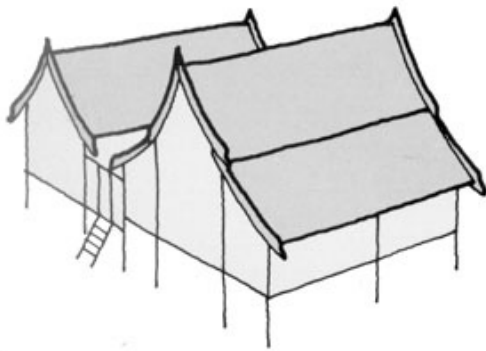


그림 9. 동부 해안지역의 주거양식



사진 8. 태국식 주거양식의 한 예

덧붙여,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집의 주 현관은 일반적으로 서향을 피하고 북남 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서향 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고 어두운 밤과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³⁾

23) Chen Voon Fee, 앞 책, p.27

이 지역의 주거양식을 분류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본체공간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수이다.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기둥 수가 적은 것(소규모)과 많은 것(대규모)-으로 정리된다. 소규모 유형은 루마 부장(rumah bujang) 또는 루마 티앙 예남(rumah tiang enam)이라고 불리는데 기둥이 6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대규모 유형은 크기 면에서 소규모의 것보다 두 배 정도 큰 것으로 루마 세람비(rumah serambi, 베란다 하우스) 또는 루미 티앙 듀아벨라스(rumah tiang duabelas)라고 불리며, 기둥의 수가 12개로 구성된 건물을 말한다. 또 주 기둥인 티앙(tiang) 이외에도 통가트(tongkat)라고 알려진 사이기둥이 있는데, 이는 기둥들 사이에서 바닥을 지탱하는 구조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가트는 기둥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 기둥은 지반에서 약 2.5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며, 대규모 건물의 경우 총 높이는 경사지붕 끝까지 약 10m 이상이 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 지역의 전통주거건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건축양식과 공간구성 측면에서 고찰하여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건축문화의 역사적 흐름과 성격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내용을 서술했다.

넓은 의미에서, 건축은 흔히 피난처로서 정의되고 있는 실제 기능의 구현과 문화예술적 표현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며, 건물이 지어지는 땅(지역)의 역사문화적·자연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점에서, 한 건축물은 그 지역의 실제적·인문적 조건들을 통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 반도 내에서 전개된 여러 유형의 전통주거양식들 역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공유하는 역사문화적 환경과 자연조건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 일반성과 각 단위지역의 구체적인

환경조건과 민족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말레이 반도 지역에서 전개된 주거양식들은 대부분 목조건축이며, 지역적 환경에서 비롯된 고상식(高床式) 구조를 일반적인 기본틀로 삼아 발전되었다. 태국 북부 산간지방처럼 추운 지역이나 인도네시아의 자바 지역과 같은 극히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주거건축은 고상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고상식 구조가 환기나 통풍 등의 기후조절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사지붕과 급한 지붕물매(평균 45~60도), 다목적 단일공간체계, 단차(段差)를 이용한 공간의 위계 설정과 성(性)에 의한 공간구분, 공간의 개방성과 가변성 등 또한 이 지역의 역사 속에서 일반화된 전통적 특성들이다.

이들 일반특성들은, 말레이 반도 내의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기인한 크고 작은 차이를 드러냈고, 그 각각의 차이들은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지닌 독특한 유형들로 변화·발전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말레이 반도 전통주거건축의 지역별 유형화는 크게 지붕형태와 기둥 수(數)의 뚜렷한 차이와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지붕은 그러한 변화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건축요소로서, 열대기후환경에서 요구되는 내부공간의 환기 및 통풍 등과 같은 기능적인 처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붕양식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뿔뿔 판장양식, 뿔뿔 리마 양식, 뿔뿔 페락 양식, 말라카 양식 그리고 동부해안 양식-으로 나뉘며, 동부해안 양식은 기둥 수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루마 부장(Rumah Bujang) 양식, 루마 세람비(Rumah Serambi) 양식-으로 나뉜다.

이들 중 뿔뿔 판장 양식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성을 갖고 있으며, 반도 지역의 토착성도 강하게 남아 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

의 양식들은 이 지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외국문화(중국, 태국, 인도, 유럽 등)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토착적인 전통형식에 장식과 간단한 기능을 더하는 수준에서 전개되었는 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중국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Abdul Halim Nasir, The Traditional Malay House, Penerbit Fajar Bakti Sdn. Bhd.(Malaysia), 1997
2.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sia-Architecture, Archipelago Press(Singapore), 1998
3. Dean Sherwin, Malay Roof Forms and Ventilation, MA(Majallah Akitek) Vol 1:77, 1977
4. Ken Yeang, The Architecture of Malaysia, The Pepin Press(KL), 1992
5. Lim Chong Keat, Habitat in Southeast Asia-A Pictorial Survey of Folk Architecture, National Art Gallery KL, 1987
6. Lim Jee Yuan, The Malay House-Re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Institut Masyarakat(Malaysia), 1987, p22
7. Roxana Waterson, The Living House-An Anthropology of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Thames and Hudson, 1990
8. 박순관, 탈(脫) 세계 속의 언더그라운드 건축, 건축인(poar)誌 2000년 10월 기획특집호